

# 국내 학회의 전자학술지 서비스 유형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ervice Patterns and Suggestions on Electronic Scholarly Journals at Academic Societies in Korea

최 재 황(Jae-Hwang Choi)\*

### 목 차

- |                     |                                      |
|---------------------|--------------------------------------|
| 1. 서 론              | 3. 2 전자학술지 서비스 유형                    |
| 1. 1 연구대상 및 방법      | 3. 3 학회와 국가 정보유통기관간의<br>전자학술지 서비스 비교 |
| 1. 2 제한점            | 3. 4 학술지 논문투고 방식의 변화                 |
| 2. 선행연구             | 4. 요약 및 결론                           |
| 3. 국내 학회의 전자학술지 서비스 |                                      |
| 3. 1 전자학술지 서비스 비율   |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회의 학술정보 서비스가 기존의 책자형태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학회 홈페이지의 전자학술지 서비스 현황과 그 유형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데이터 수집은 279종의 등재학술지를 발간하는 257개 학회를 대상으로 2003년 12월 26일부터 2004년 1월 6일까지 개별학회 홈페이지의 직접 접속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257개의 학회 중에서 116개 학회(45.1%)가 홈페이지에서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16개 학회 중에서는 62개 학회(53.4%)가 학회 자체의 노력으로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57개 학회, 116개 학회, 62개 학회들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학술지들은 국가 정보유통기관의 서비스와 각각 비교되었으며, 개별 학회의 전자학술지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논의되었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ervice pattern of electronic scholarly journals at homepages of Korean academic societies and to provide some suggestions for the better service of electronic scholarly journals.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26, 2003 to January 6, 2004. The object of the examination was from the number of 257 academic societies which are publishing Registered Journals designa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Among the number of 257 academic societies, 116(45.1%) of them are providing electronic scholarly journals at their homepages, and among the number of 116 academic societies, 62(53.4%) of which are providing electronic scholarly journals with their own efforts without other organizations' help. The number of 257, 116, and 62 academic societies are compared with national information circulation institutions in terms of the service of electronic scholarly journals. Suggestions for the better service of electronic scholarly journals at academic societies in Korea are also provided.

키워드: 전자학술지, 학회, 정보봉사, 등재학술지

Electronic Scholarly Journals, Academic Societies, Information Service, Registered Journals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choi@knu.ac.kr)  
논문접수일자 2004년 2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3월 15일

## 1. 서론

학회는 학술정보의 교환과 경험의 교류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는 단체이다. 학회는 회원들의 국내·외 학술활동 및 교류를 통해서 방대한 양의 학술정보를 생산하고 이는 연구성과에 대한 비판과 향상의 수단, 기록 수단, 그리고 정보의 제공수단 등이 된다. 특히 회원들은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최우선적으로 학술지에 게재하기 때문에 학회에서 생산되는 학술지는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정보원이 된다.

과거 학회는 생산되는 학술정보를 책자형태로만 제작하여 회원 및 기관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학회 홈페이지에서도 학술지를 서비스하는 정보제공의 직접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물론, 대표적인 국가 정보유통기관에서도 학술정보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많은 전자학술지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술지가 어떤 국가 정보 유통기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에 대해 잘 모른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해당 학술지를 생산해 내는 학회일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회가 전자형태로 학술지를 서비스한다면 학회 이용자는 보다 수월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도 학술지의 평가 시 해당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전자학술지를 서비스하는지의 유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학회의 학술정보 서비스가 책자형태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학회의 전자학술지 서비스 현황 및 그 유형에 대하여 조사해 보

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쇄 형태의 학술지를 전자학술지로 변환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학회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조사한다. 둘째, 전자학술지의 제작과 관련하여 학회의 자체 노력으로 서비스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정보유통기관에서 제작된 것을 링크하여 서비스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다. 셋째, 국가 정보유통기관에서는 전자학술지를 어느 정도 서비스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학회 홈페이지에서 전자학술지를 서비스하지 않는 학회와 학회 자체의 노력으로 전자학술지를 서비스하는 학회의 경우에 국가 정보유통기관으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전자학술지에 대하여 조사한다. 넷째, 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심사과정을 논문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학회사무국 등의 기능을 갖추고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학회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다.

학회 홈페이지에서의 전자학술지 서비스 유형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학회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자학술지를 서비스하는 학회들에게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개별 학회의 전자학술지 제공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전자학술지의 문제점을 식별함으로써 장차 서비스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1.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정한 등재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를 대상으로 수행되었

다. 2003년 12월 23일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정한 등재학술지는 총 279종(인문 43종, 사회 68종, 자연 43종, 공학 62종, 의약학 28종, 농수해 24종, 예술체육 10종, 복합 1종)이다. 이중 1개 학회가 1종의 등재학술지를 발행하는 경우가 239개 학회(239종의 등재학술지)로 가장 많았고, 1개 학회가 2종의 등재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가 14개(28종의 등재학술지), 그리고 3개의 등재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가 4개(12종의 등재학술지)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학회가 다수의 등재학술지를 발간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학회로 간주하여 279종의 등재학술지를 발행하는 257(239+14+4)개 학회를 대상으로, 전자학술지를 홈페이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지를 조사하였다. 257개 학회의 학술지 발행주체를 살펴보면, 일반학회가 241개(261종의 등재학술지)로 가장 많았고, 대학이 7개(9종의 등재학술지), 정부출연 연구원이 6개(6종의 등재학술지), 재단, 기업, 공사가 각각 1개(총 3종의 등재학술지)였다.

2003년 12월 23일 현재 분야별 등재학술지 수와, 이를 생산해 내는 학회 수, 그리고 이들의 비율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데이터 수집은 279종의 등재학술지를 발간하는 257개 학회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2003년 12월 26일부터 2004년 1월 6일까지 12일 동안 개별학회의

직접 접속을 통해 이루어졌고, 학회 홈페이지는 검색엔진 Google, Naver, Empas, 그리고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학회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식별하였다.

### 1. 2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57개 학회의 전자학술지 서비스 유형을 조사함에 있어서 전자학술지를 제공하지만, 회비를 낸 회원에게만 접근기회를 주는(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는) 학회들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둘째, 각 학회가 실제로 서비스하는 전자학술지의 질 또는 양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학술지에 실린 개별 논문이 처음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빠진 부분이 없이 잘 서비스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술지를 창간호부터 서비스하는지, 최근 몇 년간에 한 정하였는지 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 2. 선행연구

국내 학회의 전자학술지 서비스와 관련된

<표 1>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현황과 학회 수 (2003년 12월 23일 현재)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	예술체육	복합	계
등재학술지	43	68	43	62	28	24	10	1	279
학회 수	43	63	36	56	28	20	10	1	257
학회 수(%)	16.7	24.5	14.0	21.8	10.9	7.8	3.9	0.4	100

학술논문을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현양, 최선희(1999)는 국내 과학기술분야 학회를 통하여 생산, 유통되는 학술정보원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의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대 이용자 정보서비스 체계를 당시 연구개발정보센터(지금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가 시행하고 있는 학회 정보화 사업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이춘실(2001)은 인쇄본 학술지 발행과정에서 발생된 학술지의 전자출판 파일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초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2001년 시점에서 무엇이 가능하며,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를 당시 국내에서 영문으로 구축되고 있는 한국 의학학술지 논문의 초록 데이터베이스인 KoreaMed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는 전자학술지의 원문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재황(2002)은 각 학회에서 발행되는 학회논문을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용자들이 학회 연구자의 연구정보를 발생시점부터, 인쇄형태의 자료입수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논문투고 및 전자저널 출판시스템이 논의되었다.

또한 최재황(2003)은 변화하는 인터넷 연구환경에서 국내의 인쇄형 학술논문을 전자학술지로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일반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국가 정보유통기관에는 어디가 있고 그 양은 어느 정도인지, 서비스되는 전자학술지에는 중복이 있는지, 그리고 과학기술학문분야간 전자학술지의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과학기술분야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

였다.

위의 논문들은 모두 국내 학회에서 생산된 학술지 또는 원본 전자파일을 수집하고 이를 정보유통기관에서 재 가공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개별 학회의 전자학술지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가 없으며, 국외의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도 발견할 수 없었다.

### 3. 국내 학회의 전자학술지 서비스

#### 3.1 전자학술지 서비스 비율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정한 279종의 등재학술지에 대해 전자학술지의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257개 학회들의 홈페이지가 조사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홈페이지가 없는 학회

279종의 등재학술지를 발행하는 257개의 학회 중에서 12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홈페이지가 없었던 학회는 15개(15종의 등재학술지)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문학이 3개(3종의 등재학술지), 사회과학이 4개(4종의 등재학술지), 자연과학이 3개(3종의 등재학술지), 공학이 1개(1종의 등재학술지), 의약학이 2개(2종의 등재학술지), 농수해와 복합학이 각각 1개(2종의 등재학술지)였다. 공사중이거나 관리 소홀로 연결이 안되는 의약학분야 1개 학회(1개의 등재학술지)를 포함하여 총 16개 학회(16종의 등재학술지)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었다. 16개 학회는 전체 257개 학회의 6.2%에 해당된다(표 2 참조).

홈페이지가 없는 학회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약학 분야가 28개 학회 중에서 3개(10.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공학분야는 56개 학회 중에서 1개 학회(1.8%)만이 홈페이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가장 낮았다. 인문, 사회, 자연, 공학분야는 모두 6~8% 대에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복합학 분야는 대상 학회가 1개로 100%이지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며, 앞으로의 통계에서도 제외되었다.

(2)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학회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학회는 회원이 회비를 내고 관리자의 확인을 거친 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 받고 논문검색 또는 원문보기가 가능한 학회이다. 학술지의 원문정보를 제공할 때 정회원, 의사 등과 같이 특수회원으로

로 한정하는 경우, 회원에게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여 민간사업자의 DB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도 모두 여기에 포함시켰다.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학회들을 분야별로 각각 살펴보면, 인문학이 6개 학회(6종의 등재학술지), 사회과학이 16개 학회(17종의 등재학술지), 자연과학이 5개 학회(7종의 등재학술지), 공학이 18개 학회(21종의 등재학술지), 의약학이 6개 학회(6종의 등재학술지), 농수해가 3개 학회(3종의 등재학술지), 예술체육이 2개 학회(2종의 등재학술지)로 총 56개 학회(62개의 등재학술지)가 회원에게만 공개되었다. 56개 학회는 전체 257개 학회의 21.8%에 해당된다(표 2 참조).

공학분야가 56개 학회 중에서 18개(32.1%)로 가장 높아 회원 중심의 학회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인문, 자연, 의약학 분야는 13~15%로 상대적으로 낮아 일반인도 쉽게

<표 2> 학회 홈페이지에서의 전자학술지 제공여부 분석

(2003년 12월 26일 ~ 2004년 1월 6일까지의 조사내용)

구 분	홈페이지가 없는 학회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학회		전자학술지를 제공하지 않는 학회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학회		계	
	학회 (학회지)	%	학회 (학회지)	%	학회 (학회지)	%	학회 (학회지)	%	학회 (학회지)	%
인문	3(3)	7.0	6(6)	14.0	17(17)	39.5	17(17)	39.5	43(43)	100
사회	4(4)	6.3	16(17)	25.4	21(21)	33.3	22(26)	35.0	63(68)	100
자연	3(3)	8.3	5(7)	13.9	4(4)	11.1	24(29)	66.7	36(43)	100
공학	1(1)	1.8	18(21)	32.1	12(14)	21.4	25(26)	44.7	56(62)	100
의약학	3(3)	10.7	6(6)	21.4	4(4)	14.3	15(15)	53.6	28(28)	100
농수해	1(1)	5.0	3(3)	15.0	7(8)	35.0	9(12)	45.0	20(24)	100
예술체육	0(0)	0.0	2(2)	20.0	4(4)	40.0	4(4)	40.0	10(10)	100
복합	1(1)	100	0(0)	0.0	0(0)	0.0	0(0)	0.0	1(1)	100
계	16(16)		56(62)		69(72)		116(129)		257(279)	
	6.2%		21.8%		26.8%		45.1%		100%	

학회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학회에는 아래의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학회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학회비를 내고 홈페이지 접근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들 학회들에 대하여는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3) 전자학술지를 제공하지 않는 학회

전자학술지를 제공하지 않는 학회는 학회의 회원이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전자학술지 원문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는 경우이다. 이들 학회는 전자학술지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 목차 또는 초록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 전자학술지 원문과 하이퍼링크는 되어 있으나 원문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검색 창은 준비되어 있으나 조사 시점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회원만 이용할 수 있으나 논문 목차 및 초록만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학술정보(주)와 같은 민간사업자 DB와 연결되어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학회 등을 포함한다.

전자학술지를 제공하지 않는 학회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문학이 17개 학회(17개의 등재학술지), 사회과학이 21개 학회(21개의 등재학술지), 자연과학이 4개 학회(4개의 등재학술지), 공학이 12개 학회(14개의 등재학술지), 의약학이 4개 학회(4개의 등재학술지), 농수해가 7개 학회(8개의 등재학술지), 예술체육이 4개 학회(4개의 등재학술지)로 총 69개 학회(72개의 등재학술지)였다. 69개 학회는 전체 257개 학회의 26.8%에 해당된다 (표 2 참조).

전자학술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학회의 비율은 인문(39.5%), 사회(33.3%), 농수해(35.0%), 예술체육(40.0%) 분야가 높았고, 자연(11.1%), 의약학(14.3%) 분야가 낮았다. 전자학술지를 제공하지 않는 비율에서 가장 낮았던 자연분야는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학회의 비율에서는 가장 높았다.

### (4)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학회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학회는 학술지의 권, 호, 년 등을 디렉토리형으로 제시하는 경우, 디렉토리형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학술지 내용을 검색하는 검색도구를 제시하여 검색결과를 원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학회마을 홈페이지로 링크 해놓은 경우, 과학재단의 전문연구정보센터로 연결해 놓은 경우, 민간사업자인 한국학술정보(주)에 연결되지만 학술지 원문 다운로드가 가능한 경우 등을 포함하였다. 원문제공의 양에는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으면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게시판 등에 간헐적으로 올리는 원문 등의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총 257개 학회(279종의 등재학술지) 중에서 학회 홈페이지가 없거나, 접속이 안되는 16개 학회(16종의 등재학술지), 회원만이 전자학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56개 학회(62종의 등재학술지), 전자학술지를 제공하지 않는 69개 학회(72종의 등재학술지)를 제외한 116개 학회(129개의 등재학술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자학술지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116개 학회는 전체 257개 학회의 45.1%에

해당된다(표 2 참조). 과학기술분야(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 학회가 116개 학회 중에서 73개(62.9%)를 차지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자연분야가 36개 학회 중에서 24개(66.7%)로 가장 높았다. 인문, 사회, 예술체육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116개 학회(129개 학술지)는 다음 3.2절의 연구 대상이 된다.

116개 학회의 전자학술지 파일유형을 조사해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hwp' 파일로 원문을 제공하는 경우는 주로 학회 내에서 원저자의 최종 투고파일을 바로 올려 서비스하는 경우로 개방성으로 인한 저작권 보호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이고, 'tiff' 파일의 경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학회마을에 연결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pdf' 파일의 경우는 한국학술정보(주),

과학재단지정 전문연구정보센터, 또는 학회 내에서 자체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경우였다.

학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문학의 경우, 전자학술지 서비스를 'hwp' 파일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 높았다. 이는 전자학술지 서비스를 해당학회가 주로 담당함을 말해주기도 한다. 주로 권, 호에서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축파일로 자료실 등에 올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전자학술지에 대한 서비스 체계도 부족하였다. 공학분야의 경우, 'pdf' 파일형태와 'tiff' 파일형태가 50% 정도씩을 차지하고 있었고 주로 외부기관에 의존하여 전자학술지 서비스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약학 분야의 경우는 90% 이상이 'pdf' 파일을 이용하고 있었고, 외부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학회자체 제작으로 서비스되는 비율이 높았다(표 3 참조).

<표 3> 전자학술지의 원문파일 유형

	대상 학회 수	gif	hwp	pdf	tiff	dvi+pdf	html+ pdf	hwp+ pdf	tiff+pdf
인문	17		12 (70.6)	3 (17.6%)				2 (11.8)	
사회	22		3 (13.6%)	14 (63.6%)	4 (18.2%)				1 (4.6%)
자연	24		1 (4.2%)	14 (58.3%)	6 (25.0%)	1 (4.2%)	1 (4.2%)		1 (4.2%)
공학	25			12 (48.0%)	13 (52.0%)				
의약학	15	1 (6.7%)		14 (93.3%)					
농수해	9			7 (77.8%)	2 (22.2%)				
예술체육	4		2 (50.0%)	2 (50.0%)					
계	116	1 (0.9%)	18 (15.5%)	66 (56.9%)	25 (21.6%)	1 (0.9%)	1 (0.9%)	2 (1.7%)	2 (1.7%)

한 학회가 두 개의 파일 버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16개 학회 중에서 6개 학회였다. 이 중 'tiff + pdf' 유형을 제공하는 두 개 학회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학회마을과 학회자체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였고, 'hwp + pdf' (2개 학회), 'dvi + pdf' (1개 학회), 'html + pdf' (1개 학회)의 경우는 외부기관의 연계 없이 모두 한 학회가 두 개의 버전을 제공하는 경우였다.

### 3. 2 전자학술지 서비스 유형

연구대상인 257개 학회 중에서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116개 학회의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학회 자체의 노력으로 전자학술지를 서비스하는 경우

학회 자체의 노력으로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학회가 저자의 최종 투고 'hwp' 파일을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거나, 학술지를 발행하는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pdf'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려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경우이다.

전자학술지를 제공해 주는 116개 학회 중에서 53.4%에 해당하는 62개 학회가 외부기관의 연계(도움) 없이 학회 자체의 노력으로 전자학술지를 제공하고 있었다(표 4 참조). 분야별로 살펴보면, 25개 학회 중에서 3개 학회(12.0%)만이 학회 자체의 노력으로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공학분야를 제외하고, 인문, 사회, 자연, 의약학, 농수해, 예술체육 전 분야에서 학회 자체의 서비스 비율이 매우 높았다.

특히, 인문분야의 경우는 17개 학회 중에서 15개 학회(88.2%)가 전자학술지 서비스를 학회 내부의 노력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공학분야의 학회는 외부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분야보다 높다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인문분야의 학회는 외부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외부 기관의 링크를 통해 전자학술지를 서비스하는 경우

외부 기관의 링크를 통해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국가 정보유통기관이나 민간사업자의 학술지 DB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국가 정보유통기관의 경우는 다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학회마을, 20개의 전문연구정보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농업과학도서관 등으로 나뉘어진다.

116개의 대상학회 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학회마을을 이용하고 있는 학회가 27개 학회(23.2%)로 가장 많았고, 과학재단이 지정한 20개의 전문연구정보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회가 10개(8.6%) 학회,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지 DB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1개 학회(0.9%)였다. 농업과학도서관의 경우는 없었다. 국가 정보유통기관과 연계된 학회는 116개 학회 중에서 38개(32.8%)에 불과했고, 한 학회가 다수의 국가정보유통기관을 연계해 놓은 학회는 없었다(표 4 참조).

외부기관의 연계 중에서 민간사업자(한국학술정보)와의 연계는 116개의 대상학회 중 14개(12.1%) 학회였다. 민간사업자의 DB를 일반인이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



〈표 4〉 학회 홈페이지에서의 전자학술지 서비스 유형

	대 상 학회 수	학회 자체 서비스	외부기관과의 연계				학회자체+ 외부
			국가 정보유통 기관			민간사업자	
			과학기술 학회마을	전문연구 정보센터 (20개 기관)	KERIS	한국학술 정보(주)	
인문	17	15(88.2%)			1(5.9%)	1(5.9%)	
사회	22	14(63.6%)	4(18.2%)			3(13.6%)	1(4.6%)
자연	24	12(50.0%)	6(25.0%)	3(12.5%)		2(8.3%)	1(4.2%)
공학	25	3(12.0%)	13(52.0%)	7(28.0%)		2(8.0%)	
의약학	15	11(73.3%)	2(13.3%)			2(13.3%)	
농수해	9	4(44.4%)	2(22.2%)			3(33.3%)	
예술체육	4	3(75.0%)				1(25.0%)	
계	116	62(53.4%)	27(23.2%)	10(8.6%)	1(0.9%)	14(12.1%)	2(1.7%)
			38(32.8%)				

이지만 14개 학회의 경우는 다운로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물론,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고 이러한 경우는 3.1절의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학회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3) 학회 자체의 서비스와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함께 하는 경우

학회 자체의 노력으로 전자학술지를 구축해 놓고, 또 외부기관과도 연계해 놓은 학회가 두 개 학회(1.7%)였다. 사회과학분야 한국경영과 학회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학회마을과 연계하고 있었고, 또 회원에 한하여도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자연분야 한국광학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학회마을로의 연계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구축해 놓은 전자학술지 DB를 일반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해 놓았다. 같은 내용의 학술지를 두 개의 버전으로(이중으로) 서비스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3. 3 학회와 국가 정보유통기관간의 전자학술지 서비스 비교

연구대상인 257개 학회, 전자학술지를 제공하고 있는 116개 학회, 학회 자체의 노력으로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62개 학회, 그리고 전자학술지를 제공하지 않는 69개의 학회에 대하여 국가 정보유통기관은 각각 어느 정도의 전자학술지를 서비스하고 있고, 반대로 학회들은 국가 정보유통기관이 서비스하고 있는 전자학술지 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국가 정보유통기관의 전자학술지 서비스

국내 학술지의 원문을 전자화하여 이를 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국가 정보유통기관에는 국무총리실 공공기술이사회 소속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학회마을, 한국과학재단이 지정한 20개의 전문연구정보센터,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과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이 있다. 과학기술학회마을, 농업과학도서관의 전자학술지는 이용자 등록 없이 일반이용자가 이용 가능하지만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일부 전문연구정보센터의 자료는 이용자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기관도 이용자 등록만 하면 전자학술지의 이용이 가능하다. 국회도서관이 제작한 전자학술지는 국회도서관 또는 협력도서관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인 257개 학회에서 생산된 학술지 중에서 4개의 국가 정보유통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전자학술지는 124개 학회(257개 학회의 48.2%)의 학술지로 나타났다. 124개 학회의 학술지는 전체 대상학회 수 257에서 4개의 국가 정보유통기관에서 서비스되지 못한 학회 수(F값) 133을 뺀 숫자이다(표 5 참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학회마을이 87개 학회(33.9%)의 학술지를, 전문연구정보센터가 49개 학회(19.1%)의 학술지를, 농업과학도서관은 21개 학회(8.1%)의 학술지를,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16개 학회(6.2%)의 학술지를 기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었다. 4개 기관간 중복은 49개 학회(<표 5>의 E+F-대상 학회 수 값)였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학회마을은 자연, 공학분야 학회의 학술지를 중점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었고, 사회분

야, 의약학, 농수해 분야 학회도 골고루 포함하고 있었다. 20개의 전문연구정보센터는 과학기술(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분야 학회의 학술지들이 주로 서비스되고 있었고, 농업과학도서관은 자연분야와 농수해 분야 학회의 학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는 인문사회분야의 전자학술지를 많이 서비스하고 있으리라 기대되었지만, 오히려 의약학 분야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인문학분야에서 4개의 국가 정보유통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지만, 사회분야에서는 과학기술학회마을보다 적은 전자학술지를 서비스하고 있었다.

<표 5>의 E+F(173+133)의 값이 대상 학회 수의 합인 257보다 큰 이유는 4개의 국가 정보유통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학회의 수에서 중복되는 학회가 있기 때문이다. 4개의 국가 정보유통기관이 서비스하는 학회의 학술지간 중복을 나타낸 것이 <표 6>이다. 1개의 국가 정보유통기관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는 학술지의 학회가 78개로 가장 많았고, 2개의 국가 정보유통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학회가 43개, 그리고 3개의 국가 정보유통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학회도 3개나 되었다. 3개의 국가 정보유통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학회의 경우는 모두 농수해 분야였다. 2개 또는 3개의 국가 정보유통기관에서 서비스되는 학회의 학술지들은 모두 중복이고, 인력, 시간, 금전적인 면에서 낭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학회 차원에서는 반대로 이들 국가 정보유통기관의 전자학술지를 활용할 기회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보

〈표 5〉 국가 정보유통기관의 전자학술지 서비스(등재학술지 기준)

학문분야	대상 학회 수	과학기술 학회마을(A)	전문연구 정보센터(B)	KERIS(C)	농업과학 도서관(D)	A+B+C+D=E	A, B, C, D 기관에 의해 서비스되지 못한 학회=F
인문	43	1		4		5	38
사회	63	7	1	2	1	11	53
자연	36	24	9	1	5	39	7
공학	56	40	29	2	1	72	8
의약학	28	7	4	5	1	17	14
농수해	20	7	6	1	13	27	4
예술체육	10	1		1		2	8
복합	1						1
계	257	87(33.9%)	49(19.1%)	16(6.2%)	21(8.1%)	173	133

〈표 6〉 국가 정보유통기관의 전자학술지 중복도

학문분야	대상 학회 수	1개 기관이 서비스	2개 기관이 서비스	3개 기관이 서비스
인문	5	5		
사회	10	9	1	
자연	29	19	10	
공학	48	24	24	
의약학	14	11	3	
농수해	16	8	5	3
예술체육	2	2		
계	124	78(62.9%)	43(34.7%)	3(2.4%)
(78×1)+(43×2)+(3×3) = 173				

다 더 나은 정보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2)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116개 학회가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정보유통기관의 전자학술지

국가 정보유통기관들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116개 학회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전자학술지를 서비스하고 있는 까? 앞의 〈표 5〉가 257개의 학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면, 〈표 7〉은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116개 학회에 대한 결과이다. 116개 학회 중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학회마을이 50개 학회(43.5%)의 전자학술지를 서비스하고 있었고, 20개의 전문연구정보센터가 24개 학회(20.9%), 농업과학도서관이 12개 학회(10.3%),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8개 학회(6.9%)의 전자학술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116개 학회 중에서

4개의 국가 정보유통기관에서 서비스되는 학회 수는 64개 학회(116개 학회의 55.2%)가 되며, 이는 대상학회 수 116에서 4개의 국가 정보유통기관에서 서비스되지 못한 학회 수(F값) 52를 뺀 수이다(표 7 참조). 4개의 국가 정보유통기관간 중복은 30개 학회였다.

앞의 <표 4> 학회 홈페이지에서의 전자학술지 서비스 유형과 <표 7> 국가 정보유통기

관의 전자학술지 서비스를 비교하여 나타낸 표가 <표 8>이다. <표 8>은 116개 학회를 대상으로, 국가 정보유통기관이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를 학회에 연결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학회 수와 앞으로 서비스가 확대 가능한 학회 수를 보여주고 있다. 116개의 학회 중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학회마을에 연결하여 전자학술지 서비스를 하고

<표 7> 국가 정보유통기관의 전자학술지 서비스(전자학술지 제공학회 기준)

학문분야	대상 학회 수	과학기술 학회마을(A)	전문연구 정보센터(B)	KERIS(C)	농업과학 도서관(D)	A+B+C+D=E	A, B, C, D 기관에 의해 서비스되지 못한 학회=F
인문	17			3		3	14
사회	22	6	1	1		8	15
자연	24	16	4	1	3	24	6
공학	25	19	11	1		31	5
의약학	15	5	3	1	1	10	7
농수해	9	3	5	1	8	17	2
예술체육	4	1				1	3
계	116	50(43.5%)	24(20.9%)	8(6.9%)	12(10.3%)	94	52

<표 8> 현재 학회가 연계하고 있는 국가 정보유통기관의 전자학술지 서비스와 앞으로 연계가 가능한 국가 정보유통기관의 전자학술지 서비스 비교

	대상 학회 수 (A)	과학기술 학회마을		전문연구 정보센터		KERIS		농업과학도서관	
		현재 <표 4>	가능 <표 7>	현재 <표 4>	가능 <표 7>	현재 <표 4>	가능 <표 7>	현재 <표 4>	가능 <표 7>
인문	17					1	3		
사회	22	4	6		1		1		
자연	24	6	16	3	4		1		3
공학	25	13	19	7	11		1		
의약학	15	2	5		3		1		1
농수해	9	2	3		5		1		8
예술체육	4		1						
계	116	27	50	10	24	1	8		12

있는 학회는 현재 27개 학회이나 50개 학회까지 확대 가능하고, 전문연구정보센터는 현재 10개 학회이나 24개 학회까지, KERIS의 경우에는 현재 1개 학회에서 8개 학회까지, 그리고 농업과학도서관의 경우는 현재 0개 학회에서 12개 학회까지 확대 가능함을 보여준다.

(3) 자체 서비스 학회 중에서 국가 정보유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학회 수

62개 학회는 외부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학회내의 인력을 동원해서 전자학술지 서비스를 하는 학회의 수이다. <표 9>는 학회 자체에서 전자학술지를 서비스하는 62개 학회 중에서 국가 정보유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몇 개 학회까지 이용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학회마을에서는 16개 학회(25.8%)까지 지원할 수 있고, 전문연구정보센터가 8개 학회(12.9%),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농업과학도서관이 각각 4개 학회(6.5%)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2개 학회 중에서 4개

의 국가 정보유통기관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학회 수는 23개 학회(62개 학회의 37.1%)가 되며, 이는 대상학회 수 62에서 4개의 국가 정보유통기관에서 서비스되지 못한 학회 수(F값) 39를 뺀 수이다(표 9 참조). 4개 기관간 중복은 9개 학회였다. 다시 말하면, 23개 학회는 국가 정보유통기관을 잘 활용한다면 별도의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도 회원들에게 전자학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4) 전자학술지를 제공하지 않는 학회 중에서 국가 정보유통기관의 전자학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학회 수

전자학술지를 제공하지 않는 학회는 대상학회 257개 중에서 26.8%에 해당하는 69개 학회였다(표 2 참조). 69개 학회가 만약 국가 정보유통기관의 전자학술지 DB를 활용하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한다면 어느 정도의 학회까지 활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69개의 학회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학회마을은 17개 학

<표 9> 국가 정보유통기관의 전자학술지 서비스(자체 서비스학회 기준)

학문분야	대상 학회 수	과학기술 학회마을(A)	전문연구 정보센터(B)	KERIS(C)	농업과학 도서관(D)	A+B+C+D=E	A, B, C, D 기관에 의해 서비스되지 못한 학회=F
인문	15			2		2	13
사회	14	1		1		2	12
자연	12	7	3	1		11	3
공학	3	1	1			2	2
의약학	11	5	1		1	7	6
농수해	4	1	3		3	7	1
예술체육	3	1				1	2
계	62	16(25.8%)	8(12.9%)	4(6.5%)	4(6.5%)	32	39

회(24.6%), 20개의 전문연구정보센터는 12개 학회(17.4%),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농업과학도서관은 각각 4개 학회(5.8%)까지 전자학술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0 참조). 자연, 공학, 농수해 등 과학기술분야의 학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9개의 학회에 대하여 4개의 국가 정보유통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등재학술지는 총 37개 학회(17+12+4+4)가 되지만, 중복되는 학회 11개를 빼면 26개 학회(69개 학회의 37.7%)가 된다. 이와 같은 수치는 국가 정보유통기관의 전자학술지 서비스가 학회 내에서 잘 인식 및 활용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 3. 4 학술지 논문투고 방식의 변화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학회 홈페이지에서 주목해야할 새로운 경향 중의 하나는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온라인 논문투고 기능이다. 온라인 논문투고란 기존의 오프라

인 상에서 이뤄지던 일련의 논문 심사 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공의 제약을 벗어나 학회회원이면 누구나 논문을 투고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논문 투고자의 투고로부터 시작되어 심사관련 위원 선정 및 심사완료까지 모든 사항이 자동 메일 발송 및 웹 접속을 통하여 확인이 이뤄지며 필요에 따라서는 심사 독촉 메일까지 발송된다. 기존 오프라인 논문 심사과정상의 문제점들(예를 들면, 복잡한 논문관리, 심사기간의 지연, 분실 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전자출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학회의 최근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은 보통 논문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학회사무국 등의 역할이 나누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위의 4가지 기능 중 적어도 논문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3개의 역할 기능이 있으면 온라인 논문투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257개 학회 중에서 온라인 논문투고

〈표 10〉 국가 정보유통기관의 전자학술지 서비스(전자학술지를 제공하지 않는 학회 기준)

학문분야	대상 학회 수	과학기술 학회마을(A)	전문연구 정보센터(B)	KERIS(C)	농업과학 도서관(D)	A+B+C+D=E	A, B, C, D 기관에 의해 서비스되지 못한 학회=F
인문	17	1		1		2	15
사회	21	1			1	2	19
자연	4	2	3			5	1
공학	12	9	7			16	1
의약학	4		1	1		2	3
농수해	7	4	1	1	3	9	1
예술체육	4			1		1	3
계	69	17(24.6%)	12(17.4%)	4(5.8%)	4(5.8%)	37	43

관리시스템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회는 13개였고, 이들은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 등 과학기술분야 학회에 집중되어 있었다(표 11 참조). 이들 학회는 대부분 회원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 회원만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논문 게재가 결정된 논문들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학회지가 출판되는 즉, 전자출판과 연동되는 학회는 조사 시점에서 없었다.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13개 학회 중에서 3개 학회(한국소음진동 공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KISTI-ACOMS(KISTI-Article COntribution Management System)를 이용하고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보급하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3개 학회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의 기능이 홈페이지에는 있으나 조사 시점에서 오픈을 하지 않고 준비중인 학회가 10개 었다.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회원정보와 연계되기 때문에 회원 DB를 갱신하고 있는 학회가 대부분이었다. 이 시스템을 준비중인 학회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회들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분야 학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준비중인 학회의 과반수가 KISTI-ACOMS를 채택하고 있었다.

#### 4. 요약 및 결론

최근 컴퓨터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연구환경에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환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인터넷의 발전은 연구환경과 정보수집에 있어서 근본적인 사고의 틀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학회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학술지를 전자 형태로 변환하고 정보이용 환경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학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정한 등재학술지 279종을 생산해 내는

〈표 11〉 온라인 논문투고 방식을 시행하거나 준비중인 학회

	대 상 학회 수	준비중	시행중
인문	43		
사회	63		
자연	36	4	1
공학	56	5	8
의약학	28		2
농수해	20	1	2
예술체육	10		
복합	1		
계	257	10(3.9%)	13(5.1%)

257개의 학회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전자학술지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서비스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인 257개의 학회 중에서 홈페이지가 없거나 접속이 안되는 학회가 16개(6.2%), 학회의 회원만이 전자학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학회가 56개(21.8%), 전자학술지를 제공하지 않는 학회가 69개(26.8%), 그리고 전자학술지를 제공하고 있는 학회가 116개(45.1%)였다. 학회 회원만이 전자학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학회 중에는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학회가 다수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116개의 학회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졌다.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116개의 학회들이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학회 자체의 노력으로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총 62개 학회(53.4%)였다. 인문, 사회, 의약학, 예술체육분야에서 높았고 공학분야에서 낮았다. 두 번째 유형은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52개 학회(44.8%)였다. 외부기관과의 연계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학회마을이 27개 학회(23.2%), 민간사업자인 한국학술정보(주)가 14개 학회(12.1%), 과학재단지정 20개의 전문연구정보센터가 10개 학회(8.6%),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1개 학회(0.9%) 순이었다. 학회의 국가 정보유통기관에 대한 의존도는 116개 학회 중 38개 학회(32.8%)로 높지 않았다. 세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을 합한 형태로 2개 학

회(1.7%)에 불과했다.

연구대상이 되는 257개 학회,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116개 학회, 학회 자체의 노력으로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62개 학회, 그리고 전자학술지를 제공하지 않는 69개의 학회에 대하여 국가 정보유통기관에 의해 서비스되는 전자학술지를 조사하였다. 국가 정보유통기관은 연구대상이 되는 257개의 학회에 대하여 124개 학회(257개 학회의 48.2%)의 전자학술지를 제공하고 있었고, 전자학술지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였던 116개의 학회에 대하여는 64개 학회(116개 학회의 55.2%), 전자학술지 서비스를 학회 자체의 노력으로 제공하는 62개 학회에 대하여는 23개 학회(62개 학회의 37.1%), 그리고 전자학술지를 제공하지 않는 69개의 학회에 대하여는 26개 학회(69개 학회의 37.7%)의 전자학술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학회들은 학회 자체의 노력으로 전자학술지를 제공하는 학회와 홈페이지에서 전자학술지를 제공하지 않는 학회들의 경우이다. 국가 정보유통기관을 잘 활용할 경우, 이 두 유형은 각각 37%에 해당하는 전자학술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수의 국가 정보유통기관들이 존재하며 이들 기관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국내 전자학술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전자학술지를 자체 제작하여 서비스하기도 하고 민간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여 서비스하기도 한다. 전자학술지를 정보유통기관에서 자체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이들 기관은 보통 학술지를 출판하는 학회와 개별 협약을 맺으며, 일부 기관은 학회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출판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학회가 전자학술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정보유통기관의 전자학술지 서비스가 학회 내에서 잘 인식 및 활용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학술지를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국가 정보유통기관은 서비스 대상 학회들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전자학술지 서비스 업무를 설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학회는 또한 이를 잘 인식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으나, 학회 홈페이지의 조사 과정에서 특이했던 부분은 온라인 논문투고 방식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는 학회가 증가 추세에 있었다는 것이다. 257개 학회 중에서 현재 온라인 논문투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학회는 13개(5.1%)이고 이들은 주로 대규모의 과학기술분야 학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시스템을 준비중인 학회도 10개(3.9%)나 되었다.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의 보급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계획단계에서는 전자학술지에 대해 유료화 정책을 가지고 있는 학회도 있으리라 기대되었지만, 조사과정에서 전자학술지 이용에 대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학회는 발견할 수 없었다.

## 참 고 문 헌

- 이춘실. 2001. 초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학술지 전자출판 파일의 활용과 문제점: KoreaMed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2(2): 13-29.
- 조현양, 최선희. 1999. 학회 학술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3): 405-426.
- 최재황. 2003. 국가 정보유통기관의 국내 전자학술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2003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총회 및 동계학술발표회』, 2003년 12월 19-20일. [경북 경산: 대구가톨릭대학교].
- 최재황. 2002. 국내 학회발행 학술잡지의 전자저널 출판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KISTI의 논문투고 및 전자저널 출판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2): 39-54.
- 과학기술학회마을. <<http://society.kisti.re.kr>>. [cited 2004. 2. 8].
- 농업과학도서관. <<http://lib.rda.go.kr>>. [cited 2004. 2. 10].
- 한국과학재단. <<http://www.kosef.re.kr>>. [cited 2004. 2. 11].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4u.net>>. [cited 2004. 2. 8].
- 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 [cited 2004. 1. 2].